

오늘의 기사판

행사 (1일)
▲1시·군 1유동회사 설립계획 보고회=오후 2시 전남도청 대회의실.
▲2006 수산 중묘 방류=오후 2시 광주호 가사 문학관 인근(뽕장어 5천마), 오후 3시 담양호(뽕장어 1만마).
▲만덕초교·나고야 소학교 국제교류 현영식=오전 10시 담양군 만덕초교.
▲정신지체 장애아동 병영 체험=오전 10시 담양 11공수여단.
▲하절기 사랑의 헌혈운동=오전 9시 남구청 보건회의실.
(2일)
▲제 10회 출향인 자녀 고향유적지 순례=오후 3시 담양문화회관 소공연장.

정신지체 장애아동 병영 체험

공연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 무대=1일(화) 오후 8시 순천 동천보트장.
▲어린이 연극학교=5일까지 민들레 소극장.
▲광주·전남 수채화협회 회원전=6일까지 순천문화예술회관 1전시실.
▲향덕 서학회전=2일까지 메트로갤러리.
▲백일 공예전=2일까지 광주신세계 갤러리.
▲국제판화워크숍=9일까지 우제길미술관.
▲무진서각 전통각자전=1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중앙척식회사 복원기념 특별사진전=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구 중앙척식회사.
▲의향 호남을 말한다 '미술로 만나는 약무호남전'=9일까지 나인갤러리.
▲대지의 숨결전=10일까지 자미갤러리.

산동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인 탕마홍씨가 제작한 대형 애니메이션 작품 전시.
▲제7회 무등산 사랑전=11일부터 31일까지 자미갤러리.
▲일곡도서관 동아리 회원전=31일까지 일곡갤러리.
▲오월문학관 기획 전시회=21일부터 3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21일부터 31일까지.

역사속의 오늘

- ▲신분고 설치(1402)
▲프랑스인권선언(1789)
▲프랑스 미터법 채택(1793)
▲허먼 멜빌 태어남(1819)
▲청일전쟁 일어남(1894)
▲대한제국 군대 해산(1907)
▲제주도 도로 승격(1946)
▲창랑 장택상 전 총리 세상 떠남(1969)
▲해방후 첫 올림픽 금메달 획득(1976)
▲국보위, 연좌제 폐지 결정(1980)
▲중앙지의 지방주제기자제 부활(1987)

뉴스퀴즈

23. 한국의 두 번째 다목적 실용위성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위성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 5분(한국 시간) 러시아 플레세츠크 기지에서 러시아 발사체 '로코트'에 실려 지구 상공 685km의 태양 동기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일본·프랑스·러시아·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7번째로 고해상도(1m급) 인공위성을 가진 나라가 됐는데, 이 위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아리랑 2호 ②디스커버리호 ③아폴로 ④머큐리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올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당첨자 1명, 2위 당첨자 1명, 3위 당첨자 1명, 4위 당첨자 1명, 5위 당첨자 1명, 6위 당첨자 1명, 7위 당첨자 1명, 8위 당첨자 1명, 9위 당첨자 1명, 10위 당첨자 1명, 11위 당첨자 1명, 12위 당첨자 1명, 13위 당첨자 1명, 14위 당첨자 1명, 15위 당첨자 1명, 16위 당첨자 1명, 17위 당첨자 1명, 18위 당첨자 1명, 19위 당첨자 1명, 20위 당첨자 1명, 21위 당첨자 1명, 22위 당첨자 1명, 23위 당첨자 1명, 24위 당첨자 1명, 25위 당첨자 1명, 26위 당첨자 1명, 27위 당첨자 1명, 28위 당첨자 1명, 29위 당첨자 1명, 30위 당첨자 1명, 31위 당첨자 1명, 32위 당첨자 1명, 33위 당첨자 1명, 34위 당첨자 1명, 35위 당첨자 1명, 36위 당첨자 1명, 37위 당첨자 1명, 38위 당첨자 1명, 39위 당첨자 1명, 40위 당첨자 1명, 41위 당첨자 1명, 42위 당첨자 1명, 43위 당첨자 1명, 44위 당첨자 1명, 45위 당첨자 1명, 46위 당첨자 1명, 47위 당첨자 1명, 48위 당첨자 1명, 49위 당첨자 1명, 50위 당첨자 1명, 51위 당첨자 1명, 52위 당첨자 1명, 53위 당첨자 1명, 54위 당첨자 1명, 55위 당첨자 1명, 56위 당첨자 1명, 57위 당첨자 1명, 58위 당첨자 1명, 59위 당첨자 1명, 60위 당첨자 1명, 61위 당첨자 1명, 62위 당첨자 1명, 63위 당첨자 1명, 64위 당첨자 1명, 65위 당첨자 1명, 66위 당첨자 1명, 67위 당첨자 1명, 68위 당첨자 1명, 69위 당첨자 1명, 70위 당첨자 1명, 71위 당첨자 1명, 72위 당첨자 1명, 73위 당첨자 1명, 74위 당첨자 1명, 75위 당첨자 1명, 76위 당첨자 1명, 77위 당첨자 1명, 78위 당첨자 1명, 79위 당첨자 1명, 80위 당첨자 1명, 81위 당첨자 1명, 82위 당첨자 1명, 83위 당첨자 1명, 84위 당첨자 1명, 85위 당첨자 1명, 86위 당첨자 1명, 87위 당첨자 1명, 88위 당첨자 1명, 89위 당첨자 1명, 90위 당첨자 1명, 91위 당첨자 1명, 92위 당첨자 1명, 93위 당첨자 1명, 94위 당첨자 1명, 95위 당첨자 1명, 96위 당첨자 1명, 97위 당첨자 1명, 98위 당첨자 1명, 99위 당첨자 1명, 100위 당첨자 1명.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I love MY student



민문순 (금산 초등학교 교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 나는 행복을 꿈꾼다

했다.
그러던 중 한 쪽에 쪼그리고 앉아 말없이 색칠에 여념이 없는 현빈이의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수업 중에 현빈이는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주위가 산만한 편이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고 있는 현빈이의 모습은 너무나 차분하고 신중하였다.
특히 방화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다가가보니, 현빈이는 배운 대로 성실하게 붓 터치해 해 나갔고 그림은 거의 완성단계였다.
그런데 그만 차음이 현빈이의 그림을 밟고 말았다. 아직 물감이 마르기도 전이라 차음이의 운동화 발자국이 그대로 그림 위에 남게 되고, 순간 놀라 소리를 지른 것은 현빈이가 아닌 나였다.
“양차음, 조심하지 않고 이게 뭐야? 음?”
순간 내뱉은 거친 억양의 말이 채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후회하고 말았다.
“현빈아, 미안해. 어쩌면 좋니? 네 그림 너무나 잘 그렸는데 나 때

문에 밟았구나. 나만 아니었으면 더 좋은 그림이 되었을텐데, 너무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별로 버리지도 않았는데 뭘. 마르면 털어내면 돼.”
두 아이가 주고받은 따뜻한 대화가 아름다운 메아리가 되어 나의 심금을 울렸다.
한 아이는 미안한 마음에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한 아이는 괜찮다고 오히려 위로해 주고.....
가슴이 뭉클하면서 코끝이 찡해왔다.
현빈이와 차음이는 물론 27명의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예쁜 마음을 가진 천사로 보였다.
그 날 이후 나는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잘못에 대해 꾸지람을 하기보다는 칭찬할 만한 것을 찾아서 칭찬해주는 너그러움 선생님이 되게 되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생님이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 나는 행복을 꿈꾼다.

제15회 광주 전남 지역 바둑대회
광주 전남 지역 바둑대회
백, 死地 탈출 3회전 제3보(26~42)
白 김철5단 (PCA생명)
黑 정장호5단 (포스코)
日 장쉬 9단, 기성전 우승
일부의 장쉬 9단이 최근 시즈오카(静岡)현에서 열린 제3기 일본 기성전 도전 5번기 제3국에서 타이틀 보유자인 요다 9단에겐 214수 만에 흑 2집 반승을 거두고 기성타이틀을 점수했다. 장쉬 9단은 요다 9단에겐 내리 3연승, 생애 처음으로 기성타이틀을 품에 안았다. 장쉬 9단은 일본 7대 타이틀 가운데 명인, 왕좌 등 3개 기전을 석권, 1인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현재 랭킹1위 기성전은 야마시타 케이오 9단, 랭킹 3위 기성전 본인 방전은 다카오 신지 9단, 랭킹 4위인 10단전은 조지훈 9단, 랭킹 5위 기성전 천원전은 고노리 8단이 보유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5회 광주 전남 지역 바둑대회
광주 전남 지역 바둑대회
백, 死地 탈출 3회전 제3보(26~42)
白 김철5단 (PCA생명)
黑 정장호5단 (포스코)
日 장쉬 9단, 기성전 우승
일부의 장쉬 9단이 최근 시즈오카(静岡)현에서 열린 제3기 일본 기성전 도전 5번기 제3국에서 타이틀 보유자인 요다 9단에겐 214수 만에 흑 2집 반승을 거두고 기성타이틀을 점수했다. 장쉬 9단은 요다 9단에겐 내리 3연승, 생애 처음으로 기성타이틀을 품에 안았다. 장쉬 9단은 일본 7대 타이틀 가운데 명인, 왕좌 등 3개 기전을 석권, 1인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현재 랭킹1위 기성전은 야마시타 케이오 9단, 랭킹 3위 기성전 본인 방전은 다카오 신지 9단, 랭킹 4위인 10단전은 조지훈 9단, 랭킹 5위 기성전 천원전은 고노리 8단이 보유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바둑소식
日 장쉬 9단, 기성전 우승
일부의 장쉬 9단이 최근 시즈오카(静岡)현에서 열린 제3기 일본 기성전 도전 5번기 제3국에서 타이틀 보유자인 요다 9단에겐 214수 만에 흑 2집 반승을 거두고 기성타이틀을 점수했다. 장쉬 9단은 요다 9단에겐 내리 3연승, 생애 처음으로 기성타이틀을 품에 안았다. 장쉬 9단은 일본 7대 타이틀 가운데 명인, 왕좌 등 3개 기전을 석권, 1인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현재 랭킹1위 기성전은 야마시타 케이오 9단, 랭킹 3위 기성전 본인 방전은 다카오 신지 9단, 랭킹 4위인 10단전은 조지훈 9단, 랭킹 5위 기성전 천원전은 고노리 8단이 보유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Table with 4 columns: Englis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Each column contains a phrase and its translation/usage examples.
Column 1: I would love to see you / 난 자네를 만나고 싶네
Column 2: 地下鐵じゃないんですか? / 지하철이 아닙니까?
Column 3: 这里可以上网吗? / 여기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나요?
Column 4: 孟母断机 (맹모단기) / 망 망, 어머니, 끊을 단, 베틀 기